

한국 도시의 매력, 타이베이도 웃었다

전북대 신한류사업단, 대만서 11번째 신한류축제 성료

신한류 페스티벌을 통해 한류문화를 세계 각국에 전파해오고 있는 전북대학교 CK-1 신한류창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김건)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11번째 신한류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왔다.

'Follow Korea[부제:한국의 매력에 빠지다]'를 주제로 올린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1월 28일 타이베이 신의광장과 2월 3일 중정기념당(장개석 기념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두 번의 페스티벌은 국립대만사범대학교, 타이베이시민유공국민중등학교와의 공동협업과 타이베이 시청의 협조를 받아 이뤄졌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한국 도시의 매력을 주제로 하여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서울(한복 체험) ▲용인(민속놀이 체험) ▲천안(태극기 퍼레이드) ▲고흥(유자차) ▲부산(부산국제영화제 핸드 프리팅)의 6개 부스를 운영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통해 현지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 냈다.

이 행사는 사업단 주관 오프캠퍼스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개 학과의 참여 학생들이 한 달여 가량 현지 국가에 머물며 해외 자매결연대학 학점 이수, 신한류 페스티벌 개최, 버디 프로그램, 문화



전북대학교 CK-1 신한류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은 지난 1월 28일 타이베이 신의광장과 2월 3일 중정기념당에서 11번째 신한류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현장답사, 산업체 방문 등의 과정을 거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건 전북대 CK-1 신한류창의인재 양성사업단 단장은 "프로그램 준비 과정을 거치며 습득한 실무 경험과 자신감으로 우리 학생들이 취업 시장에서

도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무 중심형 창의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장수라이온스클럽, 장수읍에 사랑의 쌀 기탁

장수라이온스클럽(회장 송재근)이 최근 장수읍에 백미(10kg) 3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문우성 장수읍장은 "어려운 겨울경기에도 불구하고 이웃돕기 온정을 베풀어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기타기의 소중한 뜻과 함께 이웃돕기 물품을 복지시설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수라이온스클럽은 지역 봉사단체로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 법사랑위원회, 사랑의 성금 전달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장수지구협의회(회장 송재근)가 최근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데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고교생 2명에게 각각 성금 3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장수지구협의회 송재근 회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관내 학생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순창 곳곳 이웃돕기 성금 전달 잇따라

순창 곳곳에 사랑의 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꿈초봉빛초등어린이집(원장 우상임) 아이들이 순창군청을 찾아 1년 여동안 고생비 순으로 모은 동전 31만 200원을 이웃사랑 성금으로 기탁했다.

같은 날 평화통일지도자협의회 김길진 회장 및 회원들이 순창군청을 찾아 황숙주 군수에게 회비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2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평화통일지도자협의회원들을 해마다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군의회, 설 명절 이웃과 온정 나눔

진안군의회(의장 박명석)는 지난 14일 무술년 설 명절을 맞아 주택회제 피해자 등 관내 이웃들을 방문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을 통해 주천면 주택회제 피해자와, 안천면 관내 최고령 어르신에게 위문품으로 가래떡을 비롯한 떡국거리 전달하며 덕담을 나눴고, 이웃의 건강 상태와 생활에 불편한 점은 있는지를 점검했다.

박명석 의장은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우리 이웃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진안군 곳곳에 따뜻한 정을 전하는 진안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령새마을금고, 좀도리 쌀 모은 이웃사랑 성금 기탁

부령 새마을금고(이사장 김성택)는 설날 그믐날 부안군청을 방문해 좀도리 쌀을 모인 이웃사랑 성금을 부안군에 전달했다.

이번 기탁금은 부령 미술고에서 좀도리 쌀 모으기 행사를 추진해 모인 좀도리 쌀을 판매해 나온 410만 원의 금액을 전달하게 됐다.

김성택 부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좀도리는 쌀을 퍼서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움큼씩 덜어 모아두는 단지로 시간이 지나면 단지가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는데 이 쌀은 조상을 모실 때 사용돼 지른 했다고 해 정성이 들어 있는 복 같은 쌀이라고도 한다"며 "이처럼 복 받은 쌀로 만든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복을 전하려고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기탁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음면 저소득 취약 계층에 전달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순창고 행정동문화회, 정기총회… 장학금 100만원 전달

순창고등학교 행정동문화회는 최근 관내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순행정동문화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순창고등학교 학생 5명에게 장학금 20만원씩 총 100만원을 전달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됐다.

또 그동안 순창고등학교 행정동문화회를 이끌어 오던 최영록 회장의 뒤를 이어 정성희 신림공원과장이 회장으로 새롭게 선출됐다.

순창고등학교 행정동문화회는 순창고등학교 출신 7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창=이양원기자

18년도 순고행정동문화회 정기총회



장수군 여성농업인 배움센터, 캘리그라피 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 12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4월까지 총 20회로 여성농업인 배움센터 '캘리그라피'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배움센터는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을 개발하여 농촌여성의 권리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 농촌사회의 세소득원 모색을 목적으로 캘리그라피와 홈페션, 밭효식품 과정을 2월부터 9월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특히 캘리그라피 교육은 다양한 문체(관본체, 민체, 반흘림)의 학습으로 교육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반영된 '쓰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감성을 공유할 기회가 되고 그 소통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통한 성취감 및 창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체적인 동호회를 만들어 심화교육을 추진해, 교육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장수=고판호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트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